

민주열사안치웅의 삶과 실종 이후

1963. 10. 17 전북 남원 출생
1979. 3. 광주송일고 입학
1982. 3. 서대대학교 국제경제학과(무역학과) 입학, 대학문화연구회 가입
1983. 1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을 소지형의로 관악경찰서 조사
1983. 11. 3 학생의날 학내시위로 관악경찰서 연행
1984.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조직인 민주화 추진위원회(민주위)에서 활동
1985. 3. 28 부평역 기두시위로 구류 7일
1985. 4. 10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로 구류 3일
1985. 6. 29 구로동행피업 지원, 대우어패럴노동자 농성으로 구속, 징역1년 형
1986. 3.10 항소이유서 제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지배층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강요하여 그것이 지상의 명제이고 따라서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운동은 폭도이고 혼란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며 사회 경제적으로 저변을 형성하는 대다수 민중의 뜻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의 진정한 뜻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항소심(변호인 박원순)에서 1년 형

만기 2개월 앞두고 김해교도소로 이감, 독방생활, 단식투쟁
만기 1개월을 앞두고 대전교도소로 이감 단식으로 순회교육 거부
이감 3일만에 다시 김해교도소로 이감
1986. 7. 4 형만기 출소. 출소날까지 단식투쟁.
이후 중점관리대상이 되어 실종될 때까지 기관원 감시 사찰
1988. 2. 서울대학교 졸업
1988. 5. 26 오전 9시 경 집을 나간 이후 실종

1988. 5.31 암사2동 파출소 실종 신고
1988. 7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를 통해 치안본부에 실종 신고
1988. 7.13 한겨레신문<사람을 찾습니다> 실종자 광고 게재
1992. 5. 민방위 훈련 관계로 주민등록 말소 처리
1999. 7. 문화방송 <시사매거진>에 안치웅 실종 방영
2000. 5 ~8. 오마이뉴스에서 민가협을 통해 실종자 수배
2000. 9. 25 촬리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
2000. 9. 26 부 안영규와 모 백옥심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서 제출
“13년 동안 백방으로 찾고 찾았으나 찾을길이 없는 아들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이하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 애동한 심정을 대통령님께 올리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학부모로서 간곡히 바라옵니다.”
2000. 12. 26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 진정서 제출
2002. 9. 15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안치웅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
“타살관련 제보가 있었으나 조사기간의 부족과 조사권한의 한계로 그 진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기로 결정”
2004. 6. 10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안치웅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
2009. 7. 6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안치웅 사건 기각결정
2009. 10. 8 안치웅 유족 등 의문사유가족들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폭압기구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9일간 점거농성
2009. 11. 12 안치웅 의문사 사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정취하
“의문사 사건의 해결 및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참고인, 기관, 자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며 그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기에 진정을 취하”

2010. 2. 6 부 안영규 <위 민보상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신청>
“ 민주위 수배자 박종운 등을 검거하기 위해 박종철을 잡아 고문하여 죽였듯이 안치웅은 박종운, 백태웅씨와 더 가까운 관계로 충분히 납치, 구금, 고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0. 2 박원순변호사 <의견서>
“의문사위원회와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조사자료들을 보면, 안치웅은 출소 후 지속적으로 갑시 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시 안치웅이 감시상황에 놓였다고 추단케하는 정황적 배경들이 확인됩니다. ... 공안당국의 감시사찰 상황 알고는 달리 안치웅의 실종을 설명할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2010. 7. 10 위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방불명자로 인정됨.
2011. 5. 29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민주열사안치웅 초혼장 염수 예정